

# 마지막 주자 김국영 '폭풍 질주' 광주시청 짜릿한 '역전 금메달'

전국시·도대학육상대회  
400m 계주 3위로 출발해 1위로  
김국영 100m 이어 2관왕 올라  
같은 팀 한정미 여자 400m 우승

광주시청 김국영(29)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제41회 전국시·도대학육상경기대회 겸 2020 예천 전국대학·일반육상경기대회 2관왕에 올랐다. 같은 팀 한정미도 여자 일반부 400m에서 56초 96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국영은 20일 경북 예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대

회 남자일반부 4×100mR에서 여호수아(33), 김민균(13), 송만석(37)과 함께 호흡을 맞춰 40초34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2위 안양시청(40초63), 4위 서천군청(40초94)을 멀찌감치 따돌린 역전 1위였다.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출발, 김민균, 송만석이 차례로 바통을 이어받았고 김국영이 마지막 주자로 나섰다. 김국영이 바통을 받을 당시만해도 광주시청의 순위는 3위권이었다. 하지만 한국 남자 100m 1인자인 김국영은 다른 팀 마지막 주자들을 가볍게 따돌리며 역전극을 연출했다. 전날 1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국영은 이번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400m계주는 3~4위권을 예상했다. 김국영은 어제 1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무리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200m도 내보내지 않을 계획이었다. 그런데 김국영이 계주 마지막 주자를 자청했다"고 설명했다. 심 감독은 "계주 주자인 송만석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 (김)국영이가 마지막 경기를 하는 선배에게 금메달을 안겨주겠다며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예상치 못했던 금메달이다. 선·후배간의 끈끈함을 확인한 경기였다"고 밝혔다. 광주시청 한정미도 여자 일반부 400m에서 56초 96으로 전북 개발공사 김지은(57초61)을 따돌리고 우승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2020 예천 전국대학일반육상경기대회에서 남자 400m 계주 정상을 차지한 광주시청 육상팀의 여호수아(왼쪽부터)-김민균-송만석-김국영. <광주시청 육상팀 제공>

# 대한체육회, 장흥서 백년대계 비전 선포식

2023년 완공 체육인교육센터 부지서  
김영록 지사·이기흥 체육회장 등 참여

대한체육회가 20일 창립 100주년을 맞아 국내 스포츠인의 교육 비전 제시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장흥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장흥 부산면 지천리에 소재한 대한체육회 체육인교육센터 부지에서 진행됐다. 김영록 전남지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 정중순 장흥군수,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 등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 대한체육회는 한국 체육의 새로운 미래 100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행사는 체육인교육센터의 홍보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현장 참석자와 온라인 참가자가 함께한 비전 선포 기념 퍼포먼스, 스포츠인 교육의 비전 선포를 축하한 기념식 공개 등 순서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미래를 준비할 스포츠인을 양성하게 될 체육인교육센터는 종합 스포츠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스포츠인 전인교육 실현의 장이 될 것이다"며 "한국체육의 향후 100년 비전 실현을 위해 전남도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0일 장흥군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신축 부지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체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스포츠인 교육 백년대계 비전 선포식'장에서 기념식 제막을 마치고 전남체육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편 체육인교육센터는 16만㎡ 부지에 국비 370억원을 들여 다목적 체육관 등 체육인의 종합적, 체계적인 교육에 필요한 복합 시설로 건립 추진 중에 있다. /윤현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모터사이클 페스티벌' 성황리 마무리 150팀 600여명 참가

영암군이 후원하며, 한국이륜차안전보급협회가 주관하고 라이딩하우스(대표 조성태)가 주최한 '전남도 모터사이클 페스티벌'이 지난 16~17일 이틀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남도 모터사이클 페스티벌'은 모터스포츠의 복합문화 발전을 위해 라이딩하우스가 매년 개최하는 국내 최고 모터사이클 종합 스포츠 축제다. 이번 대회에는 150팀 6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해 '8시간 내구레이스 코리아'를 비롯해 '테이스트 오브 영암', '두카티 PP CUP' 등에서 레이스를 펼쳤다. '8시간 내구레이스 코리아'는 한 팀이 라이더를 교체하여 8시간 동안 가장 많은 바퀴 수를 기록하는 팀이 승리하는 종목으로, 순위를 다투는 경쟁과 완주를 목표로 하는 비경쟁 두 가지 클래스로 나누어서 진행됐다. '8시간 내구레이스 코리아' 경쟁팀 우승은 8시간 동안 282바퀴를 기록한 'VRFK시타니'가 차지했으며, '서플라이'가 276바퀴, '플레임바이크'가 272바퀴를 기록하며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전동평 영암군수가 스폰서 자격으로 우승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모터스포츠협회 제공>

한편 이달 24~25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리는 ASA-KIC컵은 3.4전 더블라운드로 진행될 예정이며, ASA가 후원한다. /김형주 기자 khh@kwangju.co.kr

# 호남대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 우승



호남대학교 펜싱선수단.

호남대학교 펜싱선수단이 제49회 회장배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우승했다. 20일 호남대에 따르면 호남대 펜싱선수단은 최근 지난 16일 막을 올린 이 대회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정상을 밟았다. 양예솔(스포츠클럽학과 4년)은 같은 종목 개인전에서 우승했다.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는 김정미·이승주·이혜진·

김은선이 우승을 일궈냈다. 여자 사브르 개인전에서는 호남대 선수들끼리 정상을 다투는 눈길을 끌었다. 양예솔이 1위, 전수인(스포츠클럽 3년)은 2위를 차지했고 이현정·김은선은 3위에 올랐다. 남자 사브르단체전(윤성현·윤석환·서영인·허진범)은 3위를 차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손흥민 연봉 확 오를 듯

토트넘, 최우선 순위 재계약 추진... '통 큰 제안' 가능성

최고 활약으로 2020-2021시즌을 기본 좋게 시작한 손흥민(28·토트넘 홋스퍼)의 연봉이 확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이 손흥민(28)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나섰다고 20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7명의 선수를 새로 영입하며 이적시장에서 손을 댄 토트넘이 기존 선수단에서 불잡을 선수들과 재계약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그중 손흥민이 최우선 순위로 떠올랐다. 손흥민은 지난 주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린 것을 포함해 리그 7골 2도움을 기록하며 득점 랭킹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 특히 토종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5골 7도움)과 호흡이 매우 좋다. 두 선수는 이대로라면 잉글랜드 프로축구 사상 최고의 콕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가

지 나온다. 데일리 메일은 "조제 모리뉴 감독이 구단에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모리뉴 감독은 손흥민과 하루빨리 재계약해 그를 향한 다른 유럽 빅 클럽의 영입 제의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단 입장에서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상품 가치가 높은 손흥민을 붙잡아둬야 하므로 '통 큰 자세'로 재계약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손흥민이 재계약 제의를 받아들인다면 현재 주급 15만 파운드(약 2억2000만원), 연봉 780만 파운드(약 115억원)인 그의 급여는 크게 오를 전망이다. 손흥민의 급여는 케인과 탕귀 은돔벨레에 이어 팀 내 3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케인과 은돔벨레는 주급 20만 파운드(약 2억9000만원), 연봉 1040만 파운드(약 153억원)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2관	소리도 없이
3관	담보
4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5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안한지드
6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9관	소리도 없이, 담보
7관 씨네카를	담보, 돌멩이, 에브리타임 아이 다이 극장판 요괴워처: 포에버 프렌즈
8관 씨네카를	소리도 없이, 그린랜드, 안한지드, 검객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경계의 공간**

GAC기획전시  
경계의공간  
2020. 9.1.(화) ~ 11.1.(일)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상자투의 길**

GAC기획공연 FOCUS  
코리아집시'상자투의 길'  
2020. 11. 10.(화) 19:3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GAC기획공연 FOCUS  
연극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2020. 11.18.(수) ~ 19.(목) 19:3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